

내 친구 물범, 두더시



강민서 • 인천 북포초등학교 1학년

“엄마, 백령도가 어디에 있어요?”

토끼눈을 하며 궁금해 하는 나를 보며 엄마는 우리나라 큰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다.

“여기가 북한인데, 그 아래 조그만 섬이 하나 있지? 이곳이 바로 백령도란다!”

일곱 살 유치원 입학식을 얼마 앞두고 우리 가족은 군인인 아빠를 따라서 ‘백령도’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. ‘하모니플라워호’라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백령도로 오는데, 나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다.

‘정말 네 시간 동안 이 배를 타고 가면 우리 집이 나올까? 내 친구들도 많이 있을까?’

그렇게 길고 긴 항해를 마치고, 드디어 백령도에 도착! 먼저 백령도로 들어가신 아빠가

선착장에 마중을 나오셨다. 오랜만에 아빠를 보니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눈물이 날 뻔 했다.

“엄마, 아빠가 진짜 마중을 나왔어요.”

“그래, 엄마도 이제 실감이 나는구나. 우리가 정말 백령도에 왔구나.”

아빠를 따라서 집으로 가는 길에 두더지를 닮은 귀여운 정류장이 있었다.

“오빠, 저것 좀 봐. 두더지야, 안녕! 두더지야.”

“저건 두더지가 아니라 점박이 물범이란다. 끝섬전망대에 가면 진짜 물범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단다!”

꼭 두더지를 닮아서 나는 그 정류장에 ‘두더시’라는 귀여운 이름도 붙여 주었는데, 아빠는 물범이라고 하셨다. 물범을 실제로 꼭 보고 싶었다.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난 주말에 우리 가족은 끝섬전망대에 갔다. 백령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아저씨가 계셨다. 백령도는 ‘따오기가 흰 날개를 펼치고 공중을 나는 모습처럼 생겼다’고 백령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했다. 아저씨의 설명을 다 듣고, 우리 가족은 드디어 망원경으로 점박이 물범을 볼 수 있었다. 푸른 바다 가운데 큰 바위들이 봉긋하게 솟아 있었다. 바닷속에서 먹이를 배부르게 먹고 바위 위로 올라와서 낮잠을 자는 거라고 하셨다.

“엄마, 너무 귀여워요. 꼭 바닷가에 놀러 와서 선댄하는 것 같아요.”

“그래, 그렇구나. 하하하!”

내 말에 아빠와 엄마, 오빠 얼굴에 모두 함박 웃음꽃이 피었다. 내 기분까지 정말 좋았다.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땅이 북한의 장산곶이라고 했다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북한이 잘 보인다고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다. 옛날에는 모두가 같은

나라였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다니 기분이 이상했다. 끝섬전망대를 나오면서 비둘기 모양의 쪽지에 소원을 적었다.

‘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백령도에서 잘 지내게 해 주세요. 그리고 꼭 통일이 되게 해 주세요!’

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는 지금 백령도에서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, 씩씩하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. 여름이면 백령도의 천연 비행장 사곶해변에서 물놀이를 한다. 콩돌해안에서 우리 아빠가 물수제비뜨는 모습은 정말 멋있다. 또 운동을 하고 싶으면 두무진에도 올라간다. 두무진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만들어진 절벽인데 그림처럼 너무 멋있다.

“엄마, 백령도에는 멋진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”

“그렇지, 이렇게 멋진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단다.”

백령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. 앞으로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.

‘내 친구 물범, 두더시아! 나랑 같이 오래오래 백령도에서 행복하게 지내자.’